

글. 변지혜_ Byun, Ji-hye

서울시립미술관 큐레이터

하이테크놀로지 시대, 미래로 돌아가다

Back to the future, high-technology era

문득 스마트 폰으로 멀리 계신 부모님께 오늘 먹은 음식 사진을 보내며 안부를 여쭙고, 친구들과 신나게 수다를 떨다가 이메일을 마저 확인하고, 듣고 싶은 음악을 들으며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작은 기계가 뭐라고 이렇게 웃다, 울다, 기쁘다, 슬프게 되는 것일까?

기술이라는 게 참 놀랍다. 기술(技術)의 사전적인 뜻은 1)과학 이론을 실제로 적용하여 자연의 사물을 인간 생활에 유용하도록 가공하는 수단, 2)사물을 잘 다룰 수 있는 방법이나 능력이다. 자연에서부터 필요에 의해 유용하도록 하나씩 늘어오다 보니 스마트폰도, 거대한 건축물까지도 만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인데, 그렇게 생각해보면 인간의 보다 나은 삶에 대한 욕망은 끝이 없음이 새삼스럽다.

국립현대미술관의 백남준 작품 <다다익선>은 처음 계획하여 설치될 때에는 화려한 브라운관 텔레비전 타워로 웅장함과 기술을 드러냈지만, 2015년 현재는 상당수의 브라운관 TV가 꺼져서 상층부는 거의 다 꺼진 상태로, 중·하층부도 드문드문 꺼져있는 상태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더 이상 작품의 소재였던 브라운관 TV가 사라지고 LCD, LED 모니터로 교체되자 TV를 만드는 곳도, TV의 부품을 만드는 곳도 사라져버렸다. 문화재든 미술작품이든 원래의 재료를 구할 수만 있다면야 그것으로 보수·유지하면 된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하면서 주로 사용하는 기술이 달라지자 작품의 콘텐츠를 계속 보여주기 위해 불가피하게 LCD TV로 교체하자는 말이 흘러나오는 것도,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 작품을 계속 선보여야 한다는 주장도 이 때문에 등장한다. 작품의 제멋처럼 많이 쌓은 텔레비전은 설치한 만큼 고장 나고 또 고장이 나는 것이다.

사실 굳이 매번 인식하고 살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기술들의 집약 속에서 살고 있다. 수많은 전자회로를 집약하고 집약한 반도체들의 군집들이 모여 만든 텔레비전을 보고, 카메라와 통신부품에 화면부품까지 붙어있는 휴대폰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이 가득한 우리의 삶에서 '기술'은 어떠한 의미이며, '기술'이 '예술'이 된 작품들을 소개하는 전시 <로우테크놀로지>展이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지난 2월1일 막을 내렸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매일을 반복하며 거대한 조직의 부품처럼 일하는 드라마 '미생' 속 장그래 같은 삶을 사는 현대인의 모습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양정욱 작가의 거대한 키네틱 아트 작품 <언제나 피곤은 꿈과 함께>는 나무와 전구, 실 등의 간단한 재료로 뼈대는 단순한 기계적 움직임을 반복한다. 하지만 작품을 만나면 정작 우리는 어떤 원리로 움직이고 어떤 기술이 사용되었는가 보다는 착잡한 우리네 삶의 모습으로 싱숭생숭해질 뿐이다.



홍익대학교에서 광고홍보학과 예술학을 전공하고, 서울대학교에서 미술경영 석사를 취득했다. 현재 서울시립미술관 큐레이터로 재직 중이다.



이배경, Metropolis Metaphor, 2014

이배경 작가의 작품 <메트로폴리스 메타포>는 컴퓨터 팬 같은 인공 바람들 위에 떠다니는 정육면체를 통해 팬이 있는 틀을 벗어나지 못하며 부유하는 현대인의 삶을 보여준다. 분명 움직이고 있는데 공중에 붕 떠있는 데다가 마음껏 움직이지도 못하고 도망가지도 못하고, 하얗고 텅 빈 화이트 박스의 모습으로 떠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 작품에는 인공 바람을 만드는 기술, 바람의 방향으로 물체를 이동시키는 기술, 더 뜨지도 도망가지도 못하게 만드는 기술이 함께 녹아있다. 다만 기술보다 처량함이 먼저 밀려들어올 뿐.

우리에게 기술은 많은 편리함을 제공하고 짧고 바쁜 일상을 빠르고 간편하게 보낼 수 있게 한다.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영상통화를 바로 걸면 되고, 집에 강아지가 밥은 잘 먹나 걱정이 되면 컴퓨터로 실시간 확인할 수도 있다. 결국 기술은 보고 싶음을 해결하고, 염려를 해소하는 방법이 되는 것이다.

기술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바쁘다지만, 아무리 편하다지만 기술의 유용함으로 누락되는 것들도 생각해보면 좋겠다는 것이다. 직접 만나 밥 먹고 대화하며 함께 하는 것이 기술을 통해 이루어지는 빠른 소통이 대신하지 못할 깊은 관계를 만들어주고, 기술로 구현되는 예술작품은 직접 눈으로 보며 소리와 분위기로 체감할 때 테크놀로지가 접목된 의미가 살아난다. 기계가 고장 나면 기계가 주는 기술의 편의성도 사라지지만 우리가 겪은 경험, 추억들은 사라지지 않는다.

컴퓨터로 일을 하다가도 퇴근 후에는 사람을 만나고, 휴대폰으로 인기 동영상을 보다가도 손 불 잡고 연극을 보며 눈물을 흘리는 하이테크놀로지 시대에도 당당히 아날로그 경험을 양손에 쥘 것이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생각하는 순간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 모두 차 한 잔 하실까요?



양정욱, 언제나 피곤은 꿈과 함께, 2013